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 데뷔전 앞둔 클린스만 감독

“선수들의 장점 살리는 축구를 하겠다”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 데뷔전을 앞둔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전술보다 선수들의 장점을 살리는 축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클린스만 신임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4일 오후 8시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콜롬비아와 친선경기를 치른다.

콜롬비아전은 지난해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이후 한국 대표팀이 치르는 첫 경기다.

또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감독의 후임으로 2026년 미국·멕시코·캐나다가 공동개최하는 북중미월드컵까지 계약한 클린스만 감독의 한국 사령탑 데뷔전이기도 하다.

경기 전날인 23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사전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적으로 콜롬비아를 어떻게 상대하겠다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합류한 선수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며 “준비 과정에서 선수들이 많이 관찰했다. 장점을 보면 단점도 나오겠지만, 최대한 장점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콜롬비아는 많이 배고픈 상태로 한국에 왔을 것이다. 한국은 카타르월드컵에서 성공했지만, 콜롬비아는 나가지 못했다. 아르헨티나 출신 감독이 오고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로 성적도 괜찮다. 이런 팀을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경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클린스만호는 짧게는 내년 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우승과 멀게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4강을 향해 댄다.

지난 8일 입국해 프로축구 K리그 경기를 직관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23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사전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손흥민

오늘 오후 8시 울산서 콜롬비아와 평가전
“이강인, 좋은 선수... 성장하면 기회 늘 것”

나선 클린스만 감독은 안드레아스 헤어초크(오스트리아) 수석코치 등 유럽 상위 코치진과 벤투호 출신 이강인, 김 코치, 카타르월드컵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기술연구그룹(TSG)에서 함께 활동한 차두리 테크니컬 어드바이저(기술자문)로 사단을 구성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모든 지도자가 철학이 있고 접근 방법이 있다. 감독의 철학과 선수들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졌을 때 좋은 성적이 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 온 뒤 선수 파악 등에 시간이 부족했던 클린스만 감독은 첫 소집 명단을 카타르월드컵 16강 멤버 위주로 꾸렸다.

손흥민(보통), 김민재(나폴리) 등 해외파가 변함없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월드컵에 나섰던 황희찬(울버햄튼), 윤종규(서울), 홍철(대구)은 부상으로 제외됐다.

대신 월드컵 예비 멤버로 카타르에

동행했던 공격수 오현규(셀틱)와 K리그의 베테랑 측면 수비수 이기재(수원)가 합류해 총 25명의 선수단이 구성됐다.

클린스만 감독은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항상 월드컵이 끝나고 다음 대회를 준비하면서 팀들은 많은 변화를 가져간다. 어린 선수들이 손흥민, 김민재 등 경험 많은 선수들에게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간다면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정을 지켜봐 줬으면 한다. 개인적으로도 잘 준비해서 다음 대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란 자신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벤투호 시절 주로 벤치 지원으로

뮌 미드필더 이강인(마요르카)에 대해선 “상당히 수준 높은 축구를 하는 좋은 선수다. 대표팀에서 더 성장하고 성장하도록 돕고 싶다. 지금까지 성장하면 대표팀에서도 출전 시간이 부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뛰었는데, 해외 생활은 어렵다. 언어와 문화 등이 다르고 적응이 어렵다. 그런 데도 항상 웃을 수 있는 얼굴로 생활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선수 시절 목일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공격수로 명성을 떨친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후 공격 축구를 외쳤다.

대표팀 공격수들도 명 스트라이커 출신인 클린스만의 부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대표팀 공격수들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수준이 높다. 특집하고 싶어하고, 배가 고프다고 느꼈다. 공격수는 득점으로 평가 받는데, 득점에 대한 의지가 보였다”고 했다.

이어 “선수 때 공격수로 경험한 걸 앞으로 선수들에게 공유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독일 출신으로 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해온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어도 공부도 시작했다.

그는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통역을 통해서 미팅을 한다.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며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다. 앞으로 긴 여정을 통해 한국어를 더 잘 구사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어뿐 아니라 문화 등 모든 게 다르다. 아시안컵은 유로나 북중미 챔피언십과 다르다. 모든 게 배움의 과정이고, 저와 코치진 모두 배워야 한다. 차츰 적응해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도내 곳곳 체육행사 ‘풍성’

3~4월에만 총 34개 대회 개최

본격적인 스포츠 시즌을 맞아 전라북도에서는 국제 및 전국규모 체육행사가 잇따라 개최돼 스포츠마케팅 효과를 높여 볼 전망이다.

먼저, 1,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제35회 한국중고펜싱연맹회장배 전국 남녀중고펜싱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3월과 4월 내내 다채로운 국제·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가 전북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해 올해 전북도는 97개 국제·전국 규모대회, 220여 개 생활체육대회를 위해 총 4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4월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5월 2023전북아시아태권연맹마스터스대회, 6월 새만금 국제 철인3종경기대회, 7월 세계태권도 문화 엑스포, 8월 전주월드 시니어 배드민턴대회 등 대규모 국제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스포츠를 통한 관광역 유치가 기대된다.

전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3~4월 각종 스포츠 행사를 통해 선수들과 인연, 가족 등은 물론 관람객까지 4만 5천여명이 전라북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선수단이 최상의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 등 대회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78개의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와 212개의 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전지현연 142팀을 유치해 연인원 34만 6천 명이 전북을 찾아 약 415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바 있다.

/김재훈기자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공회용 격려·포상

정강선 전라북도체육회장이 전영오 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공회용(전북은행)을 격려하고 포상했다.

정강선 회장은 지난 22일 한국 배드민턴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 공회용과 김효성 전북은행 배드민턴팀 감독을 만나 축하 인사와 함께 포상식을 가졌다.

한국 배드민턴 여자복식 공회용-김소영(인천국제공항)은 최근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전영오폰 여자복식 결승전에서 이소하-백하준을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공회용이 금메달을 획득한 전영오폰은 세계에서 가장 전통 있고 권위 있는 배드민턴 대회이다.

정강선 회장은 “강호 중국을 차례로 물리치면서 결승에 진출한 뒤 우승을 차지했다”며 “앞으로도 전북 배드민턴, 더 나아가 한국 배드민턴의 저력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25일 진안 여성축구 창단식

진안군체육회(회장 정봉운)는 오는 25일 진안공설운동장에서 진안군 여성축구 창단식과 FC트롯퀵즈와의 친선교류경기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오후 2시에 12명으로 구성된 진안 여자축구팀인 진안바이걸스 창단식을 시작으로 FC 트롯퀵즈와 자매결연식을 갖고 친선교류경기를 진행한다.

정봉운 회장은 “트롯퀵즈 선수단 및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진안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진안군이 널리 알려지고 향후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안=유태만 기자

태권도 소재 애니메이션

TV·OTT로 만난다

Ground Seohak

Exhibition & Art Fair

서학아트스페이스 2023. 3. 23 ~ 5. 10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7

아트갤러리 전주 2023. 3. 23 ~ 4. 15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 (전주아트센터)

김현영

김성석

최수정

손은영

지유라

구상희

황은미

김정현

관홍수

파아

태권도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주라기 캡스 4' (사진=태권도진흥재단 제공)

태권도 소재 애니

TV·OTT로 만난다

태권도진흥재단, 제작 지원 추진
내달 18일까지 e나라도움서 접수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은환 이하 재단)은 국기 태권도 활성화와 관련 2023 태권도 소재 애니메이션 제작 및 보급 지원 사업(이하 사업)을 추진한다.

재단은 2019년부터 태권도를 소재로 한 웹툰과 애니메이션, 영상 게임,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업은 태권도를 소재로 캐릭터와 스토리 등을 구성한 애니메이션 시리즈물을 제작, TV 또는 OTT 방영을 통해 태권도 인구 증가 및 태권도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23 태권도 소재 애니메이션 제작 및 보급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태권도진흥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4월 18일 오후 1시까지로 국

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나라도움'에서 할 수 있다.

재단은 사업 수행 계획서 등을 접수, 콘텐츠 기획력과 내용 등의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종합심의를 거쳐 1개 시리즈를 선정 후 최대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 오은환 이사장은 “국기 태권도를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생산·보급해 태권도를 누구나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우수한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콘텐츠가 보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 태권도 소재 애니메이션 제작 및 보급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태권도진흥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기자